

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

2023.11.21

나스닥100, IT 강세에 22개월래 최고치 기록

김석환 seokhwan.kim@miraeasset.com

미 증시 동향: AI 강세

- 미 증시는 OpenAI의 샘 알트만 前 CEO가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류할 수 있다는 소식과 미국채 20년물 입찰이 높은 수요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상승랠리를 연장. 특히, 나스닥 100 지수는 22개월래 최고치를 기록. 미 10년물 국채수익률은 4.4%를 기록하며 2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했고, 달러인덱스는 103선 초반까지 하락하며 지난 8월 중순이후 최저를 기록. 달러 약세 영향으로 이머징 통화 가치는 지난 8월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상승. (다우 +0.58%, 나스닥 +1.13%, S&P500 +0.74%, 러셀2000 +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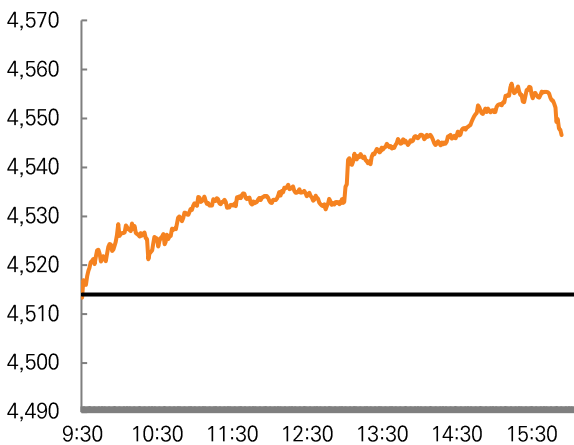
특징 종목: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신고가 경신

- (섹터) S&P 500의 11개 주요 업종 중 IT(+1.50%)와 커뮤니케이션서비스(+1.05%) 등 9개 업종 상승. 유틸리티(-0.31%)와 필수소비재(-0.01%)는 하락.
- (상승) 마이크로소프트(+2.05%)는 OpenAI의 CEO 샘 알트만을 AI팀장으로 고용하겠다는 소식에 강세. 엔비디아(+2.28%)는 화요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에 상승.
- (하락)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콧(-3.82%)과 2세븐티바이오(-18.31%)는 미 식품의약국(FDA)이 Abecma 유전자치료제 조기 사용 승인 결정을 철회하자 약세.

한국 증시 전망: AI 훈풍

- MSCI 한국 지수 ETF는 2.02%, MSCI 신흥 지수 ETF는 1.24%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86.46원으로 이를 반영한 달러/원 환율은 6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73% 상승. KOSPI는 0.6~1.0%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 미 국채수익률 하락과 달러인덱스 약세는 외국인의 위험자산 선호를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 특히, AI를 중심으로 한 IT의 강세는 국내 증시에는 우호적인 환경이 될 것으로 전망. 또한 금일 발표 예정인 1~20일 수출 통계도 주목. 지난 1~10일은 전년동기대비 3.2% 증가하며 지난 달에 이어 두 달 연속 개선되는 모습 보여. 또한 10월 대만 수출 주문이 전년대비 4.6% 감소하며 1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점도 긍정적. 다만, 코스피는 2500선을 앞두고 기술적 저항 테스트할 듯.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491.20	+0.86	상해종합	3,068.32	+0.46
KOSDAQ	813.08	+1.75	홍콩항생	17,778.07	+1.86
DOW	35,151.04	+0.58	인도센섹스	65,655.15	-0.21
NASDAQ	14,284.53	+1.13	유로스톡스 50	4,342.41	+0.04
S&P 500	4,545.29	+0.69	영국	7,496.36	-0.11
캐나다	20,245.04	+0.34	독일	15,901.33	-0.11
일본	33,388.03	-0.59	프랑스	7,246.93	+0.18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변화 요인

① OpenAI ② 국채입찰

미 증시는 OpenAI의 샘 알트만 前 CEO가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류할 수 있다는 소식과 미 국채 20년물 입찰이 높은 수요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상승랠리를 연장. 특히, 나스닥 100 지수는 22개월래 최고치를 기록. 미 10년물 국채수익률은 4.4%를 기록하며 2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했고, 달러인덱스는 103선 초반까지 하락하며 지난 8월 중순이후 최저를 기록. 달러 약세 영향으로 이머징 통화 가치는 지난 8월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상승.

OpenAI와 샘 알트만

지난 해 12월 ChatGPT를 내놓으며 인공지능(AI)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다고 평가받는 OpenAI의 샘 알트만 前 CEO가 마이크로소프트의 AI연구팀을 이끌 것이라는 소식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역사적 신고가를 재차 경신하며 금일 증시 상승을 주도. 마이크로소프트는 OpenAI의 최대 투자자로서 올해 초 약 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결정. 이를 포함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총 투자 금액은 약 130억 달러에 달해. 당시 OpenAI의 기업가치는 290억 달러로 평가됐으나 최근 860억 달러까지 급증. 다만, 샘 알트만의 거취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고 OpenAI의 직원 500여명이 현 이사회 결정에 항의하며 ‘사퇴’ 의사를 밝힌 만큼 당분간 논란은 불가피해보여. 그러나 그 기한은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

국채입찰

금일 약 160억 달러 규모로 진행된 **20년물 국채 입찰**은 예상보다 높은 수요에 성공적으로 발행. 응찰율은 올해 평균인 2.66배 보다는 낮은 2.58배를 기록했지만, 간접낙찰율은 73.98%를 기록하며 올해 평균 70.79%를 크게 상회. 간접낙찰율이 크게 오르면서 프라이머리 딜러 등의 직접 낙찰 비율은 16.51%로 올해 평균 19.21%에 비해 크게 낮아져. 지난 주 30년 만기 국채 입찰의 낮은 수요로 인해 장기물 국채에 대한 수요 부진 우려가 있었으나, 무디스의 평가처럼 미 국채에 대한 구조적 수요는 견고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장기채 중심의 수익률이 소폭 하락하는 ‘강세 플래트닝(Bull Flattening)’이 나타나며 10년물과 2년물의 장단기금리차는 전일대비 약 4bp 정도 역전폭 확대. 달러인덱스는 국채에 대한 높은 수요에 약세를 보이며 지난 8월 중순이후 최저 기록.

경기선행지수

컨퍼런스보드에서 발표한 **10월 경기선행지수**는 전월대비 0.8% 하락하며 19개월 연속 하라세를 이어가. 높은 인플레이션과 제한적인 금리 정책이 계속해서 소비자 지출을 압박함에 따라 향후 미국의 경제활동은 더욱 약화될 것으로 예상. 컨퍼런스보드는 내년 미국 경제가 매우 짧은 경기 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하며 내년 경제성장률은 0.8%에 그칠 것으로 전망. 다만, 경제의 역풍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신호로 지난 10월까지 6개월 동안 3.3% 감소했는데, 이는 이전 6개월의 4.5% 감소보다 더 적은 감소폭. 또한 뉴욕연방준비은행은 **10월 신용접근성 조사**에서 모든 종류의 신용 신청률이 41.2%로 지난 해 44.8%보다 둔화. 특히, 모기지 대출 신청은 4.3%로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 또한 거부율 역시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향후 신용접근성이 감소할 수 있음을 의미.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신고가

(섹터) S&P 500의 11개 주요 업종 중 IT(+1.50%)와 커뮤니케이션서비스(+1.05%) 등 9개 업종 상승. 유틸리티(-0.31%)와 필수소비재(-0.01%)는 하락.

(상승) 마이크로소프트(+2.05%)는 OpenAI의 CEO 샘 알트만을 AI팀장으로 고용하겠다는 소식에 강세. 엔비디아(+2.28%)는 화요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에 상승. 줌(+2.93%)은 금일 장 마감 후, 실적 발표 예정. 보잉(+4.65%), 이오반스 바이오테라퓨틱스(+8.71%), 펜 엔터테인먼트(+6.84%), ARM(+6.71%), 더치브로스(+3.48%) 등은 투자 의견 및 목표주가 상향에 강세. 파라마운트 글로벌(+5.61%)는 종합격투기 브랜드 벨라토르를 매각했다는 소식에 강세.

(하락)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콧(-3.82%)과 2세븐티바이오(-18.31%)는 미 식품의약국(FDA)이 Abecma 유전자치료제 조기 사용 승인 결정을 철회하자 약세. 체그(-6.21%), 에너지이저 홀딩스(-2.21%), 스펙트럼 브랜드 홀딩스(-2.48%), 크리스피크림(-1.30%) 등은 투자 의견 및 목표주가 하향에 약세. 캐터필라(-1.04%)는 HSBC가 보유 등급으로 신규 커버리지를 하면서 미국 기계시장의 역풍을 언급하자 약세.

상품 및
FX시장 동향

달러, 3개월래 최저 기록

(유가) 국제유가는 향후 공급 감추기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승. 오는 26일 열릴 예정인 OPEC+ 장관급 감시위원회(JMMC)에서 이 같은 조치의 내용이 발표될 가능성에 대해 다수의 언론에서 보도. 또한 사우디와 러시아의 자발적 감산조치가 올 연말에서 내년 초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점도 유가 상승을 자극. 다만, 장 초반 3% 넘게 상승했던 유가는 아랍에미리트(UAE)가 내년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란 소식에 상승 폭 축소하며 2%대 상승 마감.

(금리) 미 국채수익률은 약 160억 달러 규모의 20년물 국채입찰이 예상보다 나은 수요를 보이자, 장기채 중심의 수익률 하락 나타나. 그러나 그 폭은 1~3bp로 그 폭은 제한적.

(외환) 달러인덱스는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지난 8월 중순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 이에 MSCI 이머징 통화지수는 강세를 보이며 지난 8월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상승.

(천연가스) 유럽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이스라엘 화물선을 나포했다고 발표한 후 5% 가까이 급등하기도 하였으나, 풍부한 재고와 온화한 기후 영향으로 상승폭 축소.

한국
주식시장 전망

AI 훈풍

MSCI 한국 지수 ETF는 2.02%, MSCI 신흥 지수 ETF는 1.24%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 물은 1286.46원으로 이를 반영한 달러/원 환율은 6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73% 상승. KOSPI는 0.6~1.0%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미 국채수익률 하락과 달러인덱스 약세는 외국인의 위험자산 선호를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 특히, AI를 중심으로 한 IT의 강세는 국내 증시에는 우호적인 환경이 될 것으로 전망. 또한 금일 발표 예정인 1~20일 수출 통계도 주목. 지난 1~10일은 전년동기대비 3.2% 증가하며 지난 달에 이어 두 달 연속 개선되는 모습 보여. 또한 10월 대만 수출 주문이 전년 대비 4.6% 감소하며 1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점도 긍정적. 다만, 코스피는 2500선을 앞두고 기술적 저항 테스트할 듯.

마켓 스냅샷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0.16	대형 가치주 ETF (IVE)	+0.64
클린테크 ETF (CTEC)	-1.38	중형 가치주 ETF (IWS)	+0.29
소매업체 ETF (XLY)	+0.46	소형 가치주 ETF (IWN)	+0.25
온라인소매 ETF (EBIZ)	+1.90	대형 성장주 ETF (VUG)	+1.06
미국 인프라 ETF (PAVE)	-0.26	중형 성장주 ETF (IWP)	+0.82
핀테크 ETF (FINX)	+0.20	소형 성장주 ETF (IWO)	+0.72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0.06	퀄리티 배당주 ETF (QDIV)	-0.47
클라우드 ETF (CLOU)	+1.45	신흥국 고배당 ETF (SDEM)	+0.12
사이버보안 ETF (BUG)	-0.47	신흥국 저변동 ETF (EEMV)	+0.81
전기차&자율주행 ETF (DRIV)	+0.90	미국 국채 ETF (IEF)	+0.15
글로벌 2차전지 ETF (LIT)	+1.21	하이일드 ETF (JNK)	+0.09
바이오섹터 ETF (IBB)	+0.64	신흥국 채권 ETF (EMBD)	+0.20
로봇&AI ETF (BOTZ)	+1.41	물가연동채 ETF (TIP)	+0.30
반도체 ETF (SMH)	+1.38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40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IT	3,296.49	+1.50	+3.77	+13.59
커뮤니케이션	239.74	+1.05	+3.58	+5.49
부동산	226.81	+0.79	+6.15	+10.47
헬스케어	1,500.21	+0.52	+1.48	+0.55
경기소비재	1,330.78	+0.52	+3.62	+11.23
산업재	894.01	+0.32	+3.11	+7.04
금융	582.20	+0.15	+3.58	+8.65
소재	505.45	+0.15	+3.98	+6.64
에너지	644.25	+0.12	+0.29	-6.78
필수소비재	732.32	-0.01	+0.20	+3.02
유틸리티	313.79	-0.31	+3.94	+6.51

글로벌 FICC 동향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77.60	+2.25	-0.84	Dollar Index	103.917	-0.41	-1.84
브렌트유	82.32	+1.81	-0.55	EUR/USD	1.0915	+0.58	+2.14
천연가스	2.88	-2.43	-9.67	USD/JPY	149.63	-0.73	-1.25
금	1,980.30	-0.25	+1.52	GBP/USD	1.2462	+0.39	+1.92
은	23.96	-1.51	+5.03	USD/CHF	0.8857	-0.34	-1.88
알루미늄	2,245.50	+1.74	+0.99	AUD/USD	0.6515	+0.70	+2.42
전기동	8,430.50	+1.98	+3.23	USD/CAD	1.3723	-0.23	-0.57
아연	2,563.50	+0.33	+0.41	USD/RUB	89.5080	+0.27	-3.06
옥수수	487.50	+0.46	-1.07	USD/BRL	4.9098	+0.85	-0.60
밀	570.50	-0.69	-5.06	USD/CNH	7.2173	-0.43	-1.22
대두	1,367.25	+2.00	-1.12	USD/KRW	1,296.75	-0.01	-1.53
커피	171.15	+2.70	-1.18	USD/KRW NDF1M	1,293.43	+0.21	-1.72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4.420	-1.56	-22.01	스페인	3.602	+0.50	-16.50
한국	3.745	-6.00	-26.20	포르투갈	3.253	0.00	-17.80
일본	0.750	-0.60	-12.10	그리스	3.828	-3.00	-15.00
독일	2.611	+2.30	-10.20	이탈리아	4.345	-1.30	-21.8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